

동아시아 3국의 서구문명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신연재
사회과학부 정치학 전공

<요 약>

19 세기 말-20 세기 초 동아시아 3국의 지성계에서는, 과거의 제도와 사상이 여전히 내외성의 모순에 대응하는 주요 기반이었다. 이 때문에, 토착사상의 맥락에서 서양사상을 수용하고, 서양사상의 충격으로 토착사상이 재해석되는 동서 사상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토착질서의 다중적 위기는 서양사상의 전파, 국민국가 관념의 수용, 사상의 변화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내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구한말의 지식인들은 토착사상에 대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유보할 수도, 서양사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사상의 혁명적 변화보다는 개량의 길로 연결지었다. 그들이 토착사상과 서양사상을 절충하여, 나름대로의 신국가상(像)을 추구한 것은 그 당연한 결과였다.

Diffusion and Influence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in East Asian Countries

Shin, Ycon -Jae
Professor, Political Science

<Abstract>

Historians of East Asia had a tendency to rely on tradition-modernity approach. But, an important change has been progressed in the study of recent East Asian past. Some began to attack the assumption of radical discontinuit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two categories do not refer to internally consistent, and mutually exclusive entities. Tradition and modernity are seen as fluid, mutually interpenetrable states, with traditional societies containing modern potentialities and modern societies embodying traditional features. In the case of diffusion and acceptance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East Asian intellectuals responded to the Western impact, in the late 19th-early 20th century, in terms of concerns and problems inherited from Confucian tradition. There was a tendency to find sanctions for change within the Confucian tradition itself. They, also, reinterpreted Confucianism in order to provide a positive sanction for innovation of traditional order.

1. 들어가면서

19 세기의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은 내적 모순의 심화와 자생적 발전 요인의 대립으로 통치질서의 근간을 위협받고 있었다. 토지 문제를 둘러싼 지주와 농민 세력의 갈등, 농민반란의 빈발, 자영부농의 성장, 상공업의 발전과 하층 세력의 변혁 요구, 신분제의 이완 등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모순 요인들은,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발전적 요인들로 작용하면서 기존체제를 변증법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동태적 변화의 궤도에 이미 진입한 3국에게 서구 세력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18 세기 말 러시아 함대가 출몰한 이래 소위 '흑선'(黑船)이 빈번히 내항하여, 막부 체제 전반에 위기의식을 확산시켰다. 한국의 경우 1831년 영국 선박이 최초로 출현한 이후, 1840년대에는 프랑스 러시아 일본의 함선이 출현하여 개국을 요구했으며, 이어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는 조선조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중국은 12차 아편전쟁에서의 잇달은 패배로 서구 국가들에게 침탈의 문을 열어주었다. 특히 2차 아편전쟁 당시 서구 연합군의 북경 침령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게까지 심각한 충격을 안겨준 중대한 사건이었다. 북경의 피침은 좁게는 서구의 위세와 중국의 무기력성을 노출 시킴으로써 중국의 정치질서 개편을 촉구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넓게는 유교문명권의 정치적 문화적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문명권 전체의 위기의식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안으로 체제의 위기와 밖으로 자주의 위기를 동시에 겪게된 19 세기 말-20 세기 초의 동아시아 사회는, 국내질서와 국제질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받는 다층적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시기는 동아시아 3국에게 국내국제 구조의 개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강요한, 그리하여 이들의 미래 발전 방향을 규정짓는 역사의 격변기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외 요인의 상호 작용이 동아시아의 국내 및 국제 질서의 변화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외적 충격과 3국 지식인들 간의 사상적 상호 작용 과정에 분석의 비중을 실어야 할 이유는 다양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국 이후 19 세기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동서간의 접촉이 증대됨과 아울러 서구의 압력이 가중되었고, 둘째 이로써 점차 '내정'-內修-보다는 '외정'-外治-의 문제가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을 증폭시켰으나, 셋째 서구 세력의 압력은 이들의 인간, 국가, 세계에 대한 관념에 의하여 여과되어야 동아시아 국가들의 변화에 반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보자면, 동서 국제정치질서의 충돌 과정에서 야기된 국가 생존의 문제야말로, 정치사상을 비롯한 서구문명을 비슷한 시기에 중첩적으로 수용케 한 주요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와 사상의 면에서 진행된 동서간의 갈등은 동아시아 3국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에게 서구문명의 수용 여건을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서구사상 수용과 그 영향에 관한 분석은 비교의 준거를 상실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서구의 충격에 대응한 동아시아 3국의 수용과 영향의 형태를 보편성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2. 동서 국제정치질서의 갈등

다수의 국가로 구성된 권역이 하나의 국제정치권으로서 성립하려면 공동의 관념 체계, 개념 구조, 정치의식이 구비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들이 행위의 정당화 명분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국제정치권은 일정한 정치제도, 특정한 정치의식, 고정된 행위양식을 공유하는 권역이라고 이해된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한 정치제도와 조직, 정치권력이 일정한 정치의식의 작용으로 정당화되고 정치행위의 공동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국제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 사회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하나의 국제정치권으로 존재해 왔다.

그것은 '예교'(禮敎)의 정치의식이 통용되는 범주로서 천하를 권역으로 하며, 인간 국가 세계의 불평등을 서계적인 '예' 관념이 정당화하는 유교적 국제정치권이었다. 이 권역의 서계적 상하 질서를 세도화한 것이 '사대자소'(事人字小) 관념에 기초한 '사대교린'(事大交隣) 관계였고, 주로 조공(朝貢) 관계가 그 단간을 이루고 있었다. 사대교린 체계는, 중국과 주변국간의 관계에서는 사대복속 관계가, 주변국들간의 관계에서는 교린평등 관계가 작동되는 것으로서, 이 권역의 국제질서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공 관계는 권역내의 법질서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즉 중화주의(中華主義)적 문명권 내부에서 화이(華夷)간의 문화적 서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이용희, 1982 : 51-55 ; Hsu, 1960 : 5) 상하 질서와 서계체가 '예'에 의하여 규정되고 정당화되는 한, 국가간의 평등을 수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와 무력에 의존한 행위는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 특색이었다.

반면 서구적 국제정치권은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우월을 인정하되, 강약국이 주권국가로서는 평등하게 경쟁하고 공존하는 형태였다. 힘의 대소가 국가의 강약을 규율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주권국가의 성격상 힘에 의거한 정치행위는 세력균형의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리하여 외교와 국제법은 물론 전쟁까지도 국제정치의 제도로서 용인되는 체제였다.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보면 정치제도(사대교린과 분권적 공존체제), 행위양식(문화와 힘), 정치의식(예교와 세력균형) 모두에 걸쳐, 동과 서의 국제정치질서는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Fairbank, 1969 : 5) 시세의 동점 과정에서 공간적 보편성과 역사적 타당성을 둘러싼 양자의 갈등은 이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엽 이후 시구는 제도, 도덕, 힘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자신의 방식과 표준을 보편화하려는 가치 내포적 존재로 동아시아에 침투해 들어왔다. 이로 말미암아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시간적인 면에서 '전통'과 '근대'가, 공간적인 면에서 '서양'과 '동양'이 동시

에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3국은 전통질서의 와해와 함께 밀어닥친, 서구문명의 침투에 대하여 ‘방어’와 ‘적응’의 과정을 동시에 밟지 않으면 안되었다.(정용화, 1997 : 1) 이것은 두 권역의 접촉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로 상대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접촉의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침투가 거듭될수록, 보다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정치와 문화를 동아시아에 이식하려는 서구가, 힘의 우월을 앞세워 관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다.¹⁾ 이 단계에 이르러 동아시아 국가들의 서구에 대한 관념이 분열되었다. 하나는 서구를 분열된 개체가 아니라 통합된 총체로 인식하여, 유교문명권에 대비되는 하나의 이질 문명권으로서 또는 역사의 단위로 불가치적으로 관념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서구의 국민국가 체제를 선진 정치체제로 수긍하는 가치서계적인 관념이었다.

19세기 말엽 동아시아에 밀어닥친 서구는 전례없이 강력하고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천하 관념을 결여한 국민국가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봉건체제를 넘어선 자본주의체제였고 군사적으로 강성했으며, 과학주의와 민족주의를 신뢰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천하 관념, 봉건체제, 문반(文班) 중심의 문화, 도덕주의가 지배하던 유교문명권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Beasley, 1974 : 91) 따라서 서구와 동아시아는 다방면에서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서구가 가할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군사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 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의 파괴를, 나아가서 유교문명권 전체의 파괴까지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서구가 중국 침투 과정에서 드러낸 행위양식의 보편성-힘을 수단으로 한 이익권과 세력권의 설정, 각종 이권 침탈, 조차지 할양, 치외법권 강요-은, 서구를 하나의 통합된 문명권으로서 인식한 동아시아적 관념의 현실성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해 주는 증거였다.

다른 한편으로 서구는 강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질서와 가치의 수용을 강요하는 위협적 존재였다. 서구의 동아시아에서의 존재 양식은, 단순히 이질 문명으로서 유교문명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 문명으로서 열등 문명을 대치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도는, 서구적 국제질서의 이식과 함께 국제법 적용 공간의 확대를 통하여 서구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의 불평등을 강요한 것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사대교린 관계에 의존하고 있던 유교권 국가들에게는 주권국가간의 평등을 기조로 한 서구적 국제질서의 수용이야말로, 기존 질서의 전면적 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구에 대한 유교권 전체의 열등을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양자의 접촉 초기에는 마찰이 격렬했으나, 힘의 우열이 그 과정을 제압함으로써 서구적 질서가 유교적 질서를 대치하는 결과를 빚는다.²⁾ 그러나 대치의 과정이 급속히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당분간 유교적인 것 위에 서구적인 것이 부가된 2중 구조를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 사이에서는 후자가, 동

1. Watson, 1984 : 27. 왓슨은 서구의 팽창에 부수된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서구의 여타 지역에 대한 강대국화, 2) 세계적 팽창으로 유럽에서의 전쟁 회피, 3) 비서구국가에 대한 착취 형태가 경제적인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변화, 4) 비서구 지역에서 서구화된 엘리트 창출이 그것이다. Ibid., pp.30-32
2. Gong은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중국의 국제사회 편입 과정을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구분한다. 1 단계는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의 기준을 고수한 채 서구와의 동등한 관계 및 조약을 거부하는 단계(아편전쟁 이전)이고, 2 단계는 서구가 불평등조약으로 중국에 충격을 가하고 동시에 중국이 세계세국에서 주권국가로 전환하는 단계(南京條約 이후)이며, 3 단계는 중국이 유럽 문명을 수용하여 점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단계이다. Gong, 1984 : 172-173. 이러한 경향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동아시아 3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자가 통용되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 중, 일 3국의 개국이 완료되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투가 가속화되는 1880년대를 거쳐,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청한 종속(淸韓 宗屬)' 관계가 실질적으로 청산되는 1895년 이후에야 서구적 국제정치질서가 동아시아에서 전면 가동에 들어간다.³⁾

서구적 국제질서의 정착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사회에의 강제 편입이 완료되고, 결국 양자 사이의 불평등이 세도화되었다. 유럽 국제법의 수용을 그 표상이라고 하여도 무리는 없다. 그것은 전통적인 행위양식,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제도의 포기를 강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교권 국제정치질서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국제법은 본래 서구 국가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제도였다. 그러나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관세 자주권 부인, 그리고 치외법권과 불평등 조약을 강제함으로써 불평등의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서구적 질서의 작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문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남겨놓았다. 서구의 압력에 굴복하는 과정에서 힘의 중요성을 간파하게 된 이들은, 접촉의 후기에 이룰수록 부국강병한 서구의 각종 제도와 사상을 개혁의 모델로 설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동아시아에 의한 서구문명의 자율적 수용과 타율적 수용은 불평등의 제도화를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불평등의 탈출구를 그 세도에서 찾는 이율배반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동아시아 3국의 유럽 국제법 수용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이유 때문에 순조롭게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선교사 W. A. R. Martin의 주도 아래 『萬國公法』(1864)으로, 그리고 Charles de Martens의 『Le Guide Diplomatique』(1832)를 역시 농인의 주도 아래 『星輶指掌』(1876)으로 번역했다. 일본에서는 西周가 중국어판을 참조하여 『萬國公法』으로 간행했으며, 津田眞道가 Vissering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泰西國法論』(1868)으로 간행하였다. 한국에 최초로 국제법이 소개된 시기는 1877년(『萬國公法』, 『星輶指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만국공법이 번역된 1864년부터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된 1876년까지 23회의 사절이 중국에 파견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수용 시기가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김용구, 1998 : 280-285) 그런데 19 세기 말 일부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국제법의 수용에 적극 관심을 표시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 국제법의 준수를 통해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 운용에 반영된 국제정치의 2중성을 간파했던 것이다.

유교적 국제정치질서를 대신한 서구적 국제정치질서의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국제법 수용에 대한 지식인들의 시각이 긍부정의 양면성을 띠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동서 문명의 접촉이 '서'는 일방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동'은 단지 그 대응에 급급했던 형식이 아니라, 전통에 입각한 '동'의 대응 때문에 동서간의 상호작용으로 성리됐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다. 코헨(Cohen)이 설명하는 중국의 서구사상 수용 방

3.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는 Kim, 1980 참조. 그는 청한 종속 관계의 해소 시기를 1880년대로 잡는다. 그러나 1890년대에 들어와 한국 시장의 지배를 놓고 청일간의 경쟁이 첨예화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세한 것은 김용구, 1998 : 364-366 참조. 이한기 교수는 '개국'이란 그 반대 개념인 쇄국과 마찬가지로 유교 문명권 내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질 문화권으로서의 서구에 대한 개념이며, 역사적 현실로서의 개국은 19 세기 중엽 이후 한·중·일 3국이 국제사회에 강제 편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개국이 서구의 팽창 과정에 부수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한기, 1980

식은, 동아시아 3국에 보편적인 설명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즉, 서구의 사상은 중국이 그것에 대응하기 전에, 중국의 전통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어로 정체되어 중국적 의미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서구의 자유(liberty, freedom) 개념은 중국인들에게 자유방종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인이 대응한 것도 서구식의 자유 개념이 아닌 중국식으로 판넨된 자유방종이었다는 것이다.(Cohen, 1970 : 29-32) 게다가 아프리카, 미주, 대양주가 서구 열강에 의하여 식민지화되었던 반면, 동아시아 전체가 식민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예(Iriye)는 이러한 역사를 증거로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제국주의가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라고 규정짓는다.(Iriye, 1970 : 122-131) 이것은 그만큼 서구와의 갈등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유교적 국제정치질서가 생명력을 유지한 채 탄력성있게 대응한 증거라고 해석된다.

3. 국민국가의 관념의 개발

사회구조의 변화와 세계사 조류의 변화가 중첩적으로 투사된 결과, 19세기 말엽의 동아시아 사회는 점차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지식인의 정치사상과 역사의식의 변화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통질서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세력이 대두됐고, 또 국제정치적 인식의 부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생겨났다. 지식인의 세계관 변화는 국가의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사회 변동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유교문명권 국가에서는 권력 담당 세력과 지식인 집단이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권력'과 '지성'의 일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격변기를 맞이하여 모순 인식, 대처 방안, 신질서의 상(像)을 둘러싸고 지배집단의 분열이 야기되었다.(노재봉, 1973 : 65-66)

권력과 지성의 불일치는 서구와의 접촉 초기 단계에서는 개혁의 여부를, 후기 단계에서는 개혁의 방법과 범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모순에 부가된 개혁 과정의 혼란이 위기에의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핵심 요인은 권력과 체제의 문제였다.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이 권력 담당 세력의 교체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한 반면, 집권층은 최소한의 변화로 격변에 대처하려 했던 것이다. 후자가 체제와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모순과 충격에 대응했다면, 전자는 모순과 충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체제와 권력의 변화를 수단으로 요구하고 있었다.(佐藤愼一, 1979 : 319-320) 이로써 내재적 모순에 대처하는 '반봉건'(反封建), 서구의 충격에 대응하는 '반제'(反帝)의 역할이 일부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에게 부과되었다. 이들은 양대 과제의 해결책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상비군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도입,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산업화, 국민교육 제도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이들의 개혁 의지와 활동은 국민국가의 건설에 집중된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한 국민국가의 상이 서구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서구문명은 이들의 사상에 내재화될 계기를 포착한다. 대체로 문화전파자-중심-와 피전파자-주변-의 관계는 중심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면에서 공히 우월하되 주변은 열등한 경우와, 중심이 군사 경제의 면에서 우월하지만 주변이 문화적 우월감을 보유한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전파 속도가 급속하여 국제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주변의 전통적

가치에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성취적 저항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 통례였다.(이용희, 1982 : 61-64) 유교 문명권의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명치유신 이후 1880년대 중엽까지 광범위하고도 급속하게 서구화를 추진했던 일본이 첫째 유형에 속하고, 중심부와 준중심부에 자리잡았던 중국과 한국이 둘째 유형에 해당된다.

서구의 충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어떤 방식으로든 흡수해야 할 지배집단이 분열되었다는 데서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권력 담당 세력과 지식인의 대립이 외래문화간의 충돌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영미 계열의 자유주의와 독일 계열의 국가주의의 대립은, 1880년대의 자유민권운동과 정부국권론자들간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이와 자못 다르다. 동치중흥(同治中興)과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추진 그리고 갑신정변의 실패에서 보듯이, 권력은 연이은 서구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고수하려 했다. 권력의 이러한 태도가 외래문화의 수용을 촉구한 지식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했고, 이 결과 권력 담당 세력과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토착파 외래-또는 전통과 근대-의 선택 문제로 말미암아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서구문화 수용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복수를 단수화하는 선택의 차원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형태이고, 한국과 중국은 수용 여부에 관한 분열이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서구문화의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더라도, 지식인이 수용의 주도 세력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왓슨(Watson)이 지적한 것처럼 서구 세력은 세계적 팽창 과정에서 서구화된 엘리트층을 창출했다. 이들이 서구의 정치, 사상, 과학, 기술, 제도에 근거를 두고 국민국가 관념을 도입하여 개혁운동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Watson, 1984 : 27-32) 말하자면 서구의 침투에 권력보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지식인의 사상 속에 서구적 국민국가 관념이 내면화될 수 있었고, 나아가 이들의 개혁 활동은 국민국가 건설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관이 서구의 충격에만 대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국내적 모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대적 발전의 계기로 전환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경지의 균등 분배, 타작제(打作制)의 정액제(定額制)로의 전환, 상공업 진흥, 과거제 폐지, 헌법 제정, 국회 개설,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 입헌군주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천부인권설 등을 주장한 것에서 보듯이, 이들은 내정의 문세도 구체적으로 인지하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다.(유길준, 1971 : 109, 201 ; 康有爲, 1979 ; 加藤弘之, 1983 : 27-32) 그러나 유길준이 지주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안을 제시했고, 康有爲가 '시의'(時宜)를 중시하느라 전통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加藤弘之의 입헌군주제가 의회와 헌법의 중요성보다는 '성군'(聖君)과 집권층의 역할을 더 강조한 것은,(박기서, 1987 : 610 ; Scalapino & Yu, 1985 : 53 ; Wakabayashi, 1984 : 474-476)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들이 문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오히려 내정의 문제들 외래적 방법-상공업 진흥, 헌법 제정, 국회 개설, 자유, 평등-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내정의 모순으로부터 야기된 '계층간 위기'가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제기된 '국가의 위기'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여, '반봉건'보다는 '반제'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치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동서간의 접촉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서구 질서의 우월 때문에 유교적 국제정치질서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중국은 세계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포기하게 된다. 그 여파가 다른 국가에게도 파급되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서구에 대하여 개별국가로서의 생존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 점은 동아시아 국가의 서구 국제질서에서의 강제 편입과 유교문명권의 붕괴로 말미암아, 각국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질서 내부에서도 독자성을 확보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이 같은 변화는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정치공동체 관념에도 반영되어, 이들이 간직했던 문명권적 연대의식이 고립감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자주 의식을 개발해 나아간다.⁴⁾

이처럼 이들의 국가의식을 더욱 자극한 것은, 서구가 주도한 국제질서에서의 강제 편입이었다. 이들은 서구의 우월성을 부국강병과 동일시하여,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독립과 평등의 실현을 서두르게 된다. 이에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은 국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여타의 존재를 그 하부에 위치시켜, 국가의 목적과 필요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관념을 수립하게 된다. 내정의 모순과 외세의 압력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위기의식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국가 관념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향해 치닫게 되었다. 이런 관념이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사상에 공통의 저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19 세기 말엽 제국주의적 국제정치 행위 양식이 경쟁의 윤리로 합리화되고, 그 경쟁의 결과가 힘의 우열로 가름된다고 인식되었던 한, 국가의 생존이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권력 증강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한 것도 또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들은 국권론(國權論)적 논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존(自存)을 위한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족의식의 고취와 개혁의 요구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었다. 이들에게 국권의 강화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한, 국민국가의 정당화 명분으로 수입된 제반 서구사상은, 그것에 기여하는 한계 내에서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내걸었던 서구문명의 도입 목적은, 이들의 사상 체계에서 국권론적 사고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열쇠라고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이들은 내부의 모순과 외부의 충격이 산출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서구문명의 총체적 도입-제도, 과학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상까지-을 역설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서구문명을 도입함으로써, 안으로는 부국(富國)으로 봉건적 모순에, 그리고 밖으로는 강병(強兵)으로 서구의 충격에 대처하려 한 것이다. 예컨대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유포된 평등 사상-신분제 부정, 기본권 보장, 남녀 평등-은 개인간의 평등보다는, 그것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그리하여 국가의 자강(自強)을 이루어 국가의 자주와 평등을 성취하려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부강형 국민국가의 건설 원리로 수용된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계약론 등이 개인의 자주와 자리(自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 자강의 수단으로 귀결되고 말았다.⁵⁾ 다른 한편으로 관계 설정이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주의와 여타

4. Jansen, 1970 : 116 ; Chang, 1979 : 33 ; Matsumoto, 1971 . 51. 受護國과 贈貢國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존재 양식이되 주권의 손상이 없다고 한 유길준의 주장은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유길준, 1971 : 89-91. 그러나 유길준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한-중 조공 관계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즉 속국 지위의 근본적 탈피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어서, 국민국가 관념을 명실상부하게 성숙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김봉렬, 1986 참조.

5. 一身 독립이 一國 독립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문명의 수용은 국가의 독립과 관련해서만 가치가 있다는 福澤諭吉의 견해는 그러한 의식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福澤諭吉, “學問のすすめ”, 『福澤全集』 3, pp.18-23 ; “文明論之概略緒言”, 『福澤全集』 4. 그리고 加藤弘之, “國體新論”, 植手通有編, 『西岡・加藤弘之』 ; 梁啓超, “論近世國民競爭之人勢及中國前途” 『飲水室文集』, 4 ;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단세 신채호 진집』, 하를 참조할 것.

사상이 그 상반성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타 사상이 국가주의의 하부 체계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관념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우월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천부인권 등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도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이, 권력 담당 세력에게는 기존 체제의 봉치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던 유교적 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봉건적 모순의 해결책이 아닌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수'(內修)에 치중하던 권력 담당 세력이 '외치'(外治) 쪽으로 대응의 방향을 전환시켰어도, 그리고 그들의 개혁이 내정 쇄신용이기보다는 외압 대응용이었어도, 그들이 추구한 것은 사상의 개변이 아닌 제도의 개혁을 매개로 한 국민국가의 건설이었다.

중국과 한국이 서구국가들을 동등한 교섭 상대로 인정하여 외교전담기구-통리아문-를 설치한 것, 일본이 국제법 체계를 준수하는 일방, 타방으로 불평등조약의 개정 노력 기울이면서 서구의 국가 제도를 모사하려 했던 것 등은, 그러한 의도를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내외의 모순 축적, 개혁 방법과 범위를 둘러싼 지배집단의 분열, 정치투쟁의 과열, 사회의 해체, 국민의 동요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상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근대주의와 봉건주의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그리고 유물론과 유심론이 공존하는 형국을 보여준다.

4. 전통사상의 다기화

서구와 동아시아의 접촉이 군사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 사상, 정치 등을 포괄한 복합적인 것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서구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상이했던 결과로 대응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았다. 접촉의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설령 서구를 유교문명권과는 성격을 달리하되,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동질적 문명권이라고 관념하더라도 대응은 총체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서구에 대한 인식의 다원성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것에 상응하는 전통사상의 다기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외부적으로 서구 국가들의 상이성을 인식한 결과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구조의 분화에 대응하여 형성된 전통사상의 사회 관념 변화와 개혁 지향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였다. 18세기 이후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농민층 분화-광작농민(廣作農民)과 무토지농민-와 토지 분배 문제, 농민반란, 권력투쟁의 격화,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상인자본의 유아적 형성으로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가 하면, 아래로부터의 변혁 요구가 점차 사회적 기반을 확보해 가고 있었다.

지배층의 보수적 대응과는 달리,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했다. 그들이 기존 체제의 모순과 통치사상으로서의 유교의 한계를 비판하고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전통사상의 다기화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들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제적인(經世的) 시각을 바탕으로 유교의 형이상학성과 그 가치의 배타성을 거부했다. 이로 말미암아 유교에 압도되어 왔던 여타 사상에 대한 관심이 부활되면서 유교의 상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佐藤愼一, 1979 : 319-320) 그리고 이들이 사상으로서의 유교의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비판함으로써 유교의 분화가 촉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개

혁이 유교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커녕, 그 근간을 유지하는 한계내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른바 ‘실학’(實學)은 ‘개신유학’(改新儒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山空信 ; 1980 : 83-84) 이들의 개혁사상을 대변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 경제치용(經世致用), 이즉인지용(利卽仁之用), 중체서용(中體西用)이, 모두 ‘용’(用)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이들이 추진한 것이 체제내적 개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사상이 체제내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사상을 개혁 지향적인 방향으로 다기화시킨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시구의 연쇄적인 충격에 직면했을 때 전통사상과 태도 재정립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시구문명 수용과 대응의 내부적 기반으로 자리잡게 된다.

막부 시대의 일본은 제도 면에서 봉건체제가, 사상의 면에서는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주자학이 그 시대 통치사상의 본령을 점유하고 있어서 중국의 유교와 그 전통에 대한 지배집단의 태도가 세계관을 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말엽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지방분권제에서 중앙집권제로), 상품경제의 발전, 천황의 정신적 권위, 쇄국정책 등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주자학의 지적 경직성을 비판하는 다수의 사상이 등장한다. 그것들은 특히 중국 유교의 비실용성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즉, 주자학의 형식주의-예를 들어 의례(儀禮)의 중시-의 일본적 적실성을 부정하는 국학(國學), 양명학(陽明學), 수호학(水戶學) 등의 대두가 그러한 변화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 세기의 지배적 사상을 뒷받침했던 세 학파는 지식의 합리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독특한 세도와 전통에 입각한 국가의식을 환기시키고 있었다.(松本 三之介, 1970 : 7-32 ; Havens, 1970 : 11-12 ; Jansen, 1965 : 48-49)

그러함에도 18세기 일본의 가치와 세계관을 지배한 것은 여전히 유교였다는 역설이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척한 것은 형식화된 중국적 유교였을 뿐 일본화된 유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丸山眞男, 1974 : 140 ; Craig, 1965 : 160-166) 오히려 이들은, 유교의 보편성을 제거한 채 일본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시켜, 일본적 특수성을 이입하는 적극적 태도를 취했다. 그리하여 横井小楠은 ‘이’(利)는 ‘인’(仁)의 ‘용’(用)이라는 신황도주의(新皇道主義)를 주장했고, 神田孝平은 ‘이’가 ‘인’보다 중요하다는 급진적 자세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는 海保青陵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각자의 이익 추구가 만인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왕도(王道)의 명분을 포기하고, 패도(覇道)에 비중을 두는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의 발아를 보여주었다.(源了圓, 1967 : 83-84) 吉田松陰은 세 학파의 사상, 즉 양명학(양심에 따른 지행합일)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과, 국학(일본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개혁 요구), 그리고 水戶學(천황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민족주의 고취)을 종합하여 실용적 체제 개혁과 적극적 국가의식을 요구했다.

막부 말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통사상의 다기화가 이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었다. 따라서 시구와의 접촉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다기화된 전통사상은 시구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교의 일본화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전통사상의 다기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유교가 적응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서구문명의 해석과 도입도 유교적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구와 동아시아의 충돌로 자극된 국민국가 관념 육성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 또는 ‘도착’과 ‘외래’의 상호 대응이 그리고 공존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점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고루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성이기도 했다. 명치 초기 10여 년간 일본의 ‘분명개화’를 선도했던 ‘명육사’(明六

社) 계몽사상가들의 사상 지변에는 유교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福澤諭吉과 西澤潤은 서구사상과 유교적 가치의 조정자로서 명치 시대 정치사상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加藤弘之의 초기 사상에서 발견되는 ‘자연권’ 관념이 ‘사회계약론’이 아닌 유교적 ‘천(天) 관념에 입각한 것이라는 평가의,(米原謙, 1983 : 2) 역사적 근거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19 세기의 중국에서는 관료의 부패와 지주의 횡포에 대하여 봉건제의 모순에 정면 도전하는 다수의 농민봉기-衆粟族의 난(1801), 瑶族의 난(1831), 태평천국의 난(1851), 回民의 난, 捻軍의 난, 天地會의 난, 苗族의 난-가 발생한다. 이것들중 중국의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태평천국의 난’이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淸朝의 타도와 신왕조의 건설을,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의 철폐와 토지의 균분을 목표로 했고, 사상적으로는 유교의 이상주의와 기독교 신앙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姬田光義, 1985 : 46-58) 그런데 이 난이 초래한 정치적 영향은 매우 다중적인 것이었다. 즉 이 난의 기독교적 저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수수방관이 반기독교 운동-仇教-과 반외세 운동을 촉진했다. 그리고 난의 진압과정에서 지방세력이 실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중국 공략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지해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난과 동시에 병발한 다수의 난 때문에 중국의 지배층은 외세에 대한 대응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수호에 제1의 목표를 두으로써 보수화 경향을 강화하게 되었다.⁶⁾

중국 정치의 보수화 경향을 주도한 세력은 ‘칭의’(淸議)를 앞세운 ‘청류파’(淸流派)였다. 이들은 유교 실서불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유교의 사상과 도덕적 순수성의 보존을 추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서구의 침략에 대하여 저항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의 우월성이 기술이 아닌 정신의 견고성에 근거한다는 확신 아래 반서구적 태도-반기독교, 불평등조약의 준수 거부, 전쟁 불사-를 확대하여, 서구는 물론 서구문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군사기술의 제한적 수용을 주장하는 세력의 반중국성도 비판했다.⁷⁾ 이 점은 대외적인 면에서의 반서구적 성격과 함께 대내적인 면에서 세계관의 분열로 인한 권력투쟁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말엽의 개혁운동이 지식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반하여, 칭의에는 1870-80년대 대부분의 지식인, 관료, 집권세력, 대중이 동조함으로써, 유교는 봉치명분으로서 또는 전통사상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Cohen, 1984 : 40-52) 그러므로 서구의 침략에 대응하든 내부의 저항에 대처하든 유교 질서의 유지 내지는 복원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청류파의 등장은 중국 정치의 보수화 경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개국이 1842년으로 소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서구에 대한 대응이 1870년대에 시작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발했던 민란 때문이었다. 이들은 난의 원인을 제거하고 질서를 회복하면 서구의 압력에서 비롯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가정했고, 그러한 가정이 또한 ‘동치증흥’의 성격을 한계지웠다.(Wright, 1965 : 9) 1862년, 태평천국의 난과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야기된 봉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자, 淸朝는 개혁에 착수했다. 경제 분야의 개혁-정부의 지출 삭감, 개

6. 그 원인이나 영향을 보더라도 이 난을 서구의 충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는 Fairbank 등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Fairbank, Reischauer, and Craig, 1978 : 404.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의 해독은 아편무역의 합법화, 영토의 상실, 치외법권 강화, 제정의 손실보다도 중국 정치의 보수화였다고 하는 胡秋原의 평가가 주목할 만하다. 胡秋原, 1981 : 711.

7. 이 점 때문에 Schwartz는 ‘칭의’를 muscular Confucianism이라고 규정한다. Schwartz, 1964 : 15-16.

간과 경지 확대, 수로 개선 등-의 목표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려는 것이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군대의 재편으로 내부의 민란과 외세의 침략에 대처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동치중흥은 당면한 내외의 위기를 전통적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정류파의 영향력이 중국정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정의’가 사회 각 계층의 지지를 획득할수록 급격한 변화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고, 전통 사상의 개혁 지향적 분화가 저지되고 있었다. 1870-80년대의 ‘양무운동’은 부국강병을 수단으로 서구에 대응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의 영향으로 ‘중세서용’에 입각한 강병 정책, 특히 관영군수산업의 육성과 근대식 군대의 창설에 역점을 두는 한계 내에 안주하고 있었다. 부국강병이라는 수단이 중국 문명의 존속이라는 목표를 대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교 질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개혁만이 허용되었다. 양무운동기에는 전통사상의 개혁 지향적 다기화가 완만하게 그리고 미온적으로 소수의 지식인들에 의하여 탐색되고 있었던 탓에, (Kamachi, 1981 : xiii) 서구문명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이거나 왜곡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할양(1885),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상인자본의 성장, 조선의 지배를 둘러싼 중일의 각축, 청일전쟁(1895)에서의 패배, 서구 학문과의 접촉 증대로 인하여 양무운동의 한계가 노정되자, 19세기의 마지막 10년간 본격적인 개혁운동이 전개되면서 지성계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된다.

지식인들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하여 전통사상의 문제를 전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적 사상과 도덕의 우월성을 확신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경쟁적 국제관계에서 부강한 국민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중화주의’(中華主義)를 약화시킨 것도, 그들이 보여준 전형적인 태도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관심은, 국민국가화의 지해 요인 제거와 그것들의 정당화 명분이었던 유교의 존재 가치 재해석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⁸⁾ 유교의 절대성이 상대화되는 가운데 ‘제자학’(諸子學)-법가, 도가, 묵가,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다. 또한 유교 전통 내부에서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한학’(漢學)을 비판하고, 국가와 천하의 질서 수립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경세학’이 부활되었다.⁹⁾

그러므로 19세기 말엽의 중국에서는 유교와 전통 문화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복합적으로 경쟁하고 있었다고 하는 분석이 더 타당한 것이다. 유교 사상의 분화 과정에서 이렇게 다기성과 동태성이 부여됨으로써, 제자백가 사상중의 일부로 상대화된 유교는 서구사상들과 다양하게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¹⁰⁾ 그리하여 청말 사상계의 일반적 추세였던 소위 ‘西學源出於中國論’이 중국과 서구사상간의 상호 작용에 촉매제로 작용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서구의 우월성-사상, 군사

8. Chang, 1969 : 23 ; Howard , 1969 : 8-9. Chang은 1890년대 중엽 이후 1900년대 초엽까지의 기간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전통문화에서 근대문화로 이행하는 데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9. 梁啟超, 1987 : 81-82. 과거에 배척했던 불교의 가치를 재평가한 것은 이 시대 중국 지식인들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더구나 엄복(嚴復)의 경우 도가와 법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Pusey, 1983 : 167-175). 전국시대의 통일 움직임에 대하여 각국은 부국강병을 추진했던 바,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법가이다. 법가 사상은 대외적 부국강병의 필요에 부응하여 대내적 耕과 대외적 戰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이 비슷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청말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법가 사상을 재평가하도록 만들었다. 법가 사상에 관해서는 세이이치, 1986 : 369-371. 법가 사상이 이미 양무운동기에 부활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Cohen, 1974 : 31) 동치중흥기의 정치사상에 부차적이긴 하지만 법가의 부강 사상이 작용했다는 견해도 있다.(Chang, 1979 : 30-31).

10. 그러나 Levenson은 중국 문화의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근대 중국의 중요한 변화는 외부의 충격에서 걸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Levenson, 1958, I : 14. 그의 견해에 동조하는 것으로는 Hsu, 1970 : 6.

기술, 과학, 수학, 기독교-은 본래 유교 고전에 출처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그러한 사상과 제도를 무시한 반면, 서구는 이를 개승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으로 고대의 문화를 숭상하는 중국인의 문화적 자부심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유교사상의 터전 위에서 서구사상의 수용을 촉진했던 것이다.(Franke, 1967 : 111-112)

유교의 핵심 문제인 '인'(仁)의 실현 방법으로 '수신'(修身)을 강조하는 한학의 비현실성에 대한 반발로, 사회정치의식을 유교의 불가분의 일부로 주장하는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했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한학의 도덕적 사회적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유교의 경세 이상 달성 수단으로 수신과 도덕 지배를 강조하는 '宋學派'(唐鑑), 유교사상중 경세를 중시하던 한학의 제도 개혁(改制) 사상을 강조한 '新考證學派'(魏源), 그리고 정치 목표의 실현 수단으로서 수신의 효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전통적 정치사상의 범주는 고수하면서 전문적 치국술에 의한 행정 개혁을 강조하는 '經世學派'(康有爲, 梁啓超)가 공존하고 있었다.¹¹⁾ 이처럼 다양한 학파의 형성은 청말의 사상계가, 전통사상이 해체되면서 서구사상의 수용이 확대되는 과도기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가운데 청말 변법파(變法派)의 지도자로서 송학의 '경세', 신고증학의 '제도 개혁', 한학의 '인' 그리고 서구사상을 융합하여 발전시킨 강유위의 절충주의적 학풍의 영향 아래, 양계초의 국가사상에서는 개혁의 요구가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서구 세력의 팽창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 초기 단계에서는 斥和斥洋斥邪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3국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에게는, 외세의 충격과 기존 체제의 모순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이 한편으로 국민국가 편입을 각성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건설을 저해하는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Watanuki, 1971 : 425-426) 17-18 세기 영정조 시대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하여, 개신 유학의 시각을 바탕으로 체제 내적 개혁의 처방을 내렸던 실학과 중에서 '북학파'의 사상이 가장 개방적이라는 평가는, 청한 사대관계의 변화에 저항한 것-尊明排淸류의 小中華主義의 초극-에 근거를 둔 것이다.

17세기 전반 명(明)과 청(淸)의 교체가 기성 사실화되었음에도, 조선조는 중화주의의 계승과 문화적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명과의 실질적 사대관계와는 달리 청과는 형식적 사대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었다.(전해봉, 1970 : 53-54) 이 같은 태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청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도입하자는 북학파의 주장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 세기에 들어와 세도정치의 강화로 사회구조가 경색되는 것과 함께 실학의 발전도 지지당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실학은 일부 인사의 사상에 내면화된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개화사상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실학에 의해 촉진되었던 전통사상의 자생적 다기화도 이와 함께 억제될 수 밖에 없었다.

정치환경의 이러한 전개에 덧붙여 외세의 연쇄적 충격-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운양호 사건(1875), 강화도조약(1876), 정한론(征韓論)-이 가해지는 와중에서 체제 개혁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구한말의 개혁 요구는, 형태의 면에서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성격의 면에서는 급진파, 보수파, 절충파로 구분할 수 있다.¹²⁾ 동학혁명(1894)으로 대표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내정개혁-除暴救民 즉 탐관오리 숙청, 노예 제도 폐

11. 梁啓超는 '桐城學派'를 '宋學'에서 분리했으나 학문을 위한 학문, 문장의 기교 중시, 비사회성을 들어 경세 사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양계초, 1987 : 79. 그러나 유교의 사회적 의미를 중시했다는 점을 들어 '절충학파'로 평가하는 논자도 있다. 野村浩, 1964 : 84 참조.

12. 이것은 신용하 교수의 분류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자세한 것은 신용하, 1977 참조.

지, 인재 등용, 토지 균분-과 반외세-遂滅倭夷-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정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집권층과 외세-정, 일-의 개입으로 인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이 좌절로 말미암아 위로부터의 개혁만이 활동 공간을 부여받게 되어, 지배층과 지식인들이 개혁의 주도권을 독점하게 된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로써 급진개화파(開化黨), 온건개화파(東道西器論者), 보수파(爲正斥邪論者)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전통사상의 분열로 인하여 개국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동학혁명(1894), 갑오경장(1895), 독립협회의 활동(1896-97), 의병항전(1895, 1905)-은 모두 개혁 여부 그리고 개혁의 방법과 범위라는 두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외세의 빈번한 침투 시도는 재야 유럽세력을 중심으로 한 위징척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바 있다. 이들은 당면한 국내외 위기의 원인이 유교 자체가 아닌 그 적용의 오류에 있다는 전제에 따라, 징통 유교로 회귀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대외적인 '척사'(斥邪)보다 대내적인 '위정'(衛正)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고수한 결과였다. 그리하여 개국 이후 내적 모순의 축적을 외세의 지속적 침투의 산물로 파악하고,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는 비판의 예봉을 척사로 집중시키면서, 주로 저항을 강조하는 쪽으로 운동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 같은 반외세 의식의 이면에는 서구의 침투로 야기될 경제의 궁핍화와, 천주교의 전파로 초래된 전통문화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세하고 있었다.(최창규, 1977 : 52-53 ; 이만열, 1987 : 14)

주자학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발상에 입각한 '존화적 양이론'(尊華的 攘夷論)이 거기에 지배적 사상으로 작용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상적으로는 '외양'(外攘)의 전제로 '내수'(內修)가 요구되고 있어서, 유교질서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내정개혁 방안이야말로 정치의식의 핵심 요소였다. 이들은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교질서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군주 및 집권 세력의 급속적 '수신'을 기반으로 체제를 유지 내지 강화하려는 복고적 '내수외양론'(內修外攘論)을 주장했다. 이로써 그들은 정말 청류파의 보수주의와 매우 흡사한 태도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재야 유럽 모두가 위정척사파-최익현, 이항로, 김평복 등-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중 일부와 권력 담당 세력-김홍집, 어윤중 등-은 '도'(道)는 불변이지만 '기'(氣)는 가변이라는 입장에서 '동도'(東道)를 중심으로 한 '서기'(西器)의 수용을 주장했다. 서구와의 접촉 초기 과정에서 보수적 배타적 태도를 견지했던 이들의 태도 변화는, '외정'(外政)의 소폭 변화-사상과 제도의 도입 불가, 기술의 도입-를 매개로 내정의 현상유지를 추구한 결과였다. 개국 이후 이들의 서구적 국제정치질서 경험은, 종래의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유교적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초래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국제질서가 사대 또는 조공 관계에 기초한 것이었던 반면, 서구의 그것은 힘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박충석, 1979 : 173) 이런 인식이 이들로 하여금 '부국강병'을 추구하도록 했고, 그 사상적 기반이 '동도시기론'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서기'-서구의 기술과 무기-의 가치를 서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만 긍정했으므로, 유교 질서의 근간에 개혁의 방향을 조준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시켰다. 내적 개혁과 대외 저항의 불철저성은 이러한 한계 내에 안주한 결과였으며, 이 점에서 중국의 양부운동과 성격이 유사하다.

급진개화파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개혁운동에 연결시키는가 하면, 서구의 충격에 적극 대응할 목적으로 서구 문명의 전면적 수용을 주장한 부류였다. 예를 들어 박영효는 개혁 수단의 선택을 문제삼고 있던 집권 세력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개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동도'와 '서기'의 구분을 막론한 채, 모든 수단의 동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서구문명의 전면 수용 주장을 대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개화사상은 내재적 개혁 요구와 외래적 개혁 수단을 융합시킨 것으로서 유교적 가치의 상대적 저하와 함께 양자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었다.¹³⁾

이들이 추진한 개혁의 내용-사민평등, 지조법(地租法) 개혁, 세관의 설치, 산업 진흥, 탐관오리 척결, 국가의 자주 독립 등-이 광범위한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들이 내외의 모순을 심각히 인식한 결과 국민국가의 건설로 양대 과제의 동시 해결을 추구한 것에서 찾아진다. 급진개화파의 근대국가 관념은 대폭적이며 급격한 개혁 노력에서 보여지듯이, 전통질서의 모순과 개혁에 대해서는 투철한 인식을 드러내지만, '자주'의 인식에서는 역현상을 빚어낸다. 이들의 개혁이 부국강병을 수단으로 자주독립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음에도, 개혁 수단과 목표를 외세-서구와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터여서 자주 의식의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바꾸어 말하자면 서구와 일본은 위협의 주체라는 점에서 저항의 대상이었지만, 선진문명국가라는 짐에서는 개혁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급진개화파'는 처음부터 '반제'와 '반외세'에 천지할 수 없었다. 급진개화파의 이러한 소극적 자주 의식은 청일전쟁 이후 국가의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권 수호와 개혁의 필요를 역설하는 독립협회와 애국계몽운동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혁 여부를 둘러싼 전통사상간의 갈등 그리고 개혁의 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개혁사상간의 갈등은, 한국의 전통사상이 다기화의 과정에 진입하여 서구사상과 다양한 영향을 상호 교환한 증거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사상의 다기화를 촉진시킨 동인이 지배집단의 분열이었다는 한정성은, 한말의 개혁 지향적 사상에 대해 지지층의 확산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개혁 지향적 사상은 독립협회의 활동(1896-97)과 애국계몽운동(1905-1910)을 통해 국권 회복과 관련을 맺으면서 점차 지지 기반을 확보해 들어간다.(이광린, 1989 : 95-99) 이 과정에서 대중 설득의 수단으로 다수의 서구사상-사회진화론, 민족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국가유기체론-이 유입되어 국가의식을 자극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입의 성격이 일방 통행적인 것은 아니었다.

1890년대 이후 대내외적 위기가 제도화되면서 기존 체제와 유교의 가치가 절하되었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함에도 그것이 여전히 통치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를 좇아 서구사상을 수용할 경우, 유교의 성격에 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다. 동시에 유교가 동치사상으로 잔존하여 기존 체제를 규율하고 있던 한, 서구사상은 유교와 공존 가능하도록 변용되어야만 했다. 이른바 '신구학절충론'(新舊學折衷論)-구본신참(舊本新參), 신구참작(新舊參酌)-은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유길준의 예를 들자면, 그는 단순히 서구문명을 소개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전통과 근대를 복합화했거나,(하영선, 1997) 또는 전통과의 연속선상에서 근대를 지향했다고(장인성, 1997)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서구사상과 전통사상, 신학과 구학의 혼거를 초래하고 사상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

13. 강재연, 1985 : 125-126. 이 점은 개화사상의 내재적 발전론과 외래적 발전론의 대립을 가져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구선희, 1987 : 97-98 참조. 개화파의 대표자격인 박영효의 개혁 사상은 내외 요인의 영향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된다. 清水功 (1976 : 89)은 일본을 통하여 서구의 사상을 수용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그를 福澤諭吉, 梁啓超와 같은 변법론자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1888년 상소문」을 근거로, 강재연(1970)은 그의 개혁 사상을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김영작(1989)은 부국강병과 국민통합을 지향한 내정 개혁 사상으로, 이광린(1973)은 근대 민족주의의 선구적 사상으로 평가했다. 요컨대 첫째 박영효는 세력관형의 수단으로 일본을 이용하려 하였고, 둘째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입헌군제하의 중앙집권적 정부를 추구했으며, 셋째 국민의 문명개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관한 종합적 논의는: 김현철, 1999 참조.

며, 근대적 정치사회 발전 방향의 확립을 어렵게 만들었다.(김도형, 1986 : 97-123 ; 유영렬, 1987 ; 정명환, 1973 : 135 ; Maruyama, 1963 : 135) 그것은 동아시아 3국의 통치사상으로서의 유교의 가치가 약화되어, 서구사상이 전면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현상이었다.

5. 나오면서

19 세기 말엽의 동아시아 3국에서는 기왕의 경험에 대한 회의로 말미암아, 유교적 국제질서가 아닌 서구적 국제질서 속에서 자기 위치를 규정하려는 지성계의 변화가 일어난다.(Schrecker, 1969 : 45) 그러나 과거의 제도와 사상이 여전히 내외정의 모순에 대응하는 주요 기반이어서, 개혁과 외래 사상 수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었다. 내재적 요구와 외래적 충격을 다윈적인 서구사상과 분열된 전통사상을 조화시켜 해결하려 했던 이유허가 여기에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서구사상을 이해하고, 후자의 충격으로 전자가 재해석되는 동서 사상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Furth, 1983 : 325 ; Levenson, 1958 : 105-106)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부국강병한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주의가 중화주의(中華主義)를 대치하고, 개혁사상의 관심은 국가의 자주 구현에 집중된다. 이런 점에서 전통질서의 다중적 위기는 국민국가의 도입을 위한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내외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자주 확립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의 지식인들은 전통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도, 근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다. 이에 따라 19 세기 말엽-20 세기 초의 그들은 이런 기회를 모험으로 연결짓기보다는 절충의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들이 유교적 전통질서와 서구적 근대질서를 복합화하여, 나름대로의 근대상(像)을 추구한 것은 그 당연한 결과였다.

<참고문헌>

- 단재 신채호 전집 간행위원회 편 (1977), 『단재 신채호 전집』 형설출판사
- 유길준 전서 편찬위원회 편 (1971), 『유길준 전서』 일조각
- 加藤弘之 (1983), “隣草,” 植手通有 編, 『西周・加藤弘之』 日本の名著 34, 東京: 中央公論社
- 康有爲 (1979), “公車上書,” 鄧力群原 編, 『中國近代史資料選集』 香港: 三聯書店
- 福澤諭吉 (1959), 『福澤全集』 東京: 岩波書店
- 植手通有 編 (1983), 『西周・加藤弘之』 日本の名著 34 中央公論社
- 梁啓超, 이기동 최인범 공역 (1978), 『清代學術概論』 여강출판사
- 강재언 (1985), 『한국의 근대사상』 한길사
- 구선희 (1987), “福澤諭吉과 1880년대 한국 개화 운동,” 『사총』
- 김도형 (1986), “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 연구,” 『한국사연구』 54
- 김봉렬 (1986), “유길준의 국권론,” 『경희사학』 1213
- 김영작 (1989),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청계연구소
- 김용구 (1984), “한국의 근대 국제법이론 수용에 관한 연구,” AKSE 회의 발표논문
- (1998), 『세계외교사』 서울대 출판부
- 김현철 (1999), 『박영효의 근대국가 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노재봉 (1970), “한국의 지성 풍토,” 『문학과 지성』 1-1
- 박기시 (1987), “한일 근대 개화사상의 비교 - 변혁주체론을 중심으로,” 『박성봉교수 회갑기념 논총』 경희대 출판부
- 박충석 (1979), “조선 후기에 있어서 정치사상의 전개,” 『현상과 인식』 6
- 우노 세이이치 (1986), 『중국의 사상』 열음
- 유영렬 (1987), “대한자강회의 친구학 절충론,” 『최영희 선생 화갑 기념 한국사학 논총』 탐구당
- 이광린 (1973), “개화승 이동인,” 『개화당 연구』 일조각
- (1989), “개화 사상의 형성과 그 발전 - 실학의 전통 및 서구사상의 수용과 관련하여,” 『한국사 시민 강좌』 4, 일조각
- 이만열 (1987), 『한국 근대 역사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 이용희 (1982), 『일반국제정치학』 상, 박영사
- 이한기 (1980), “한국 및 일본의 개국과 국제법,”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9집
- 장인성 (1997), “유길준에 있어서의 도덕과 정치: 자기-타자 인식의 정치적 사유,”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 정명환 (1973), “이광수의 계몽사상,” 『문학과 지성』 4-1
- 정용화 (1998),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창규 (1977), “위정적사의 사상적 평가,” 『한국 근대사의 재조명』 서울대 출판부
- 하영선 (1997), “유길준의 문명개화론: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한국정치학회 1997년 월례발표회 발표 논문
- 坂田光義 外 (1985), 『중국근현대사』 일월서각

- 姜在彦 (1970), 『朝鮮近代史研究』
- 米原謙 (1983), “儒教と天賦人權論,” 『西周加藤弘之』 日本の名著 34, 附録
- 山室信一 (1980), “實學觀の政治的位相,” 『社會科學研究』, 31-5
- 松本三之介 (1974), “新しい政治意識の萌芽,” 橋川文三 外, 『近代日本政治思想史』
- 野村浩一 (1964), 『近代中國の政治と思想』 東京：筑摩書房
- 源了圓 (1968), “徳川時代における近代思想の形成,” 古田光 外編, 『近代日本社會思想史』 I
- 佐藤愼一 (1979), “清末啓蒙思想の成立, 1,” 『國家學會雜誌』 92-56
- 青木功一 (1976), “朴泳孝の民本主義新民論民族革命論 (1),” 『朝鮮學報』, 80
- 丸山眞男 (1974),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東京大出版會
- 胡秋原 (1981), “關於近代中國西方認識並論近代中國思想史問題,” 周陽山 外編, 『近代中國思想人物論』
- Beasley, W. G. (1974), “Self-Strengthening and Restoration : Chinese and Japanese Response to the West in the Mid Nineteenth Century,” *Acta Asiatica*, 26
- Bull & Watson (eds.) (1984),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 Chang, Hao (1969), “Liang Ch’i-ch’ao and the Intellectual Chang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XIX, No. 1
- Chang, Hao (1971), *Liang Ch’i-ch’ao and Intellectual Transition in China 1890-1907*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Cohen, Paul A. (1970), “Ch’ing China : Confrontation with the West, 1850-1900,” in James B. Crowley (ed.),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 (1974),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 Craig, Albert (1965), “Science and Confucianism in Tokukawa Japan,” Jansen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Crowley, James B. (ed.) (1970),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Fairbank, John K. (1969), *The Chinese Traditional World Order*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Fairbank, Reischauer, and Craig (1978), *East Asia : The Modern Transform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 Franke, Wolfgang (1967), *China and the West* Columbia :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 Furth, Charlotte (1983), “Intellectual Change : From the Reform Movement to the May Fourth Movement, 1895-1920,” Twichett & Fairbank (ed.),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2, Part 1,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 Gong, Gerritt W. (1984), “China’s Entry into International Society,” Bull & Watson

- (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 Havens, Thomas R. (1970), *Nishi Amane and Modern Japanese Thought*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Howard, Richard (1969), "The Chinese Reform Movement of the 1890's,"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XIX, No.1
- Hsu, C. Y. (1970), *The Rise of Modern China* New York : Oxford Univ. Press
- Iriye, Akira (1970), "Imperialism in East Asia," in James B. Crowley (ed.),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Jansen, Marius B. (1965),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1970), "The Meiji State : 1868-1912," in Crowley, (ed.),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Kamachi, Noriko (1981), *Huang Tsun-hsien and the Japanese Model*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Kim, Key-Hiuk (1980), *The Last Phase of East Asian World Order*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Levenson, Joseph R. (195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3 Vols,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Maruyama, Masao (ed.) (1963), *Thought and Behavior in Modern Japanese Thought* London : Oxford Univ. Press
- Matsumoto, Sannosuke (1971), "The Significance of Nationalism in Modern Japanese Thought,"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XXI, No.1
- Pusey, James R. (1983), *China and the Charles Darwi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Scalapino, Robert A. & George T. Yu (1985), *Modern China and Its Revolutionary Process*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Schrecker, John (1969), "Reform Movement, Nationalism, and China's Foreign Polic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XIX, No.1
- Schwartz, Benjamin I.(1964),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 Yen Fu and the Wes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Wakabayashi, Bob Tadashi (1984), "Kato Hiroyuki and Confucian Natural Rights, 1861-1870,"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44, No.2
- Watanuki, Joji (1971), "State Formation and Nation-Building in East Asi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23, No.3
- Watson, Adam,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Expansion," Bull and Watson (e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 Wright, Mary C. (ed.) (1965),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New York : Atheneum

